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카자흐스탄 물류시장 활성화 동향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아시아~유럽항로 선박 90%, 14,000TEU 초과 예상
2. 아마존,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 절반 차지
3. 중국 자유무역항 개발, 홍콩항 위협 예상
4. 급성장하는 Amazon의 3PL 사업, 기존 3PL 업체에 위협?



해외현지리포트

1. 남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물류 동향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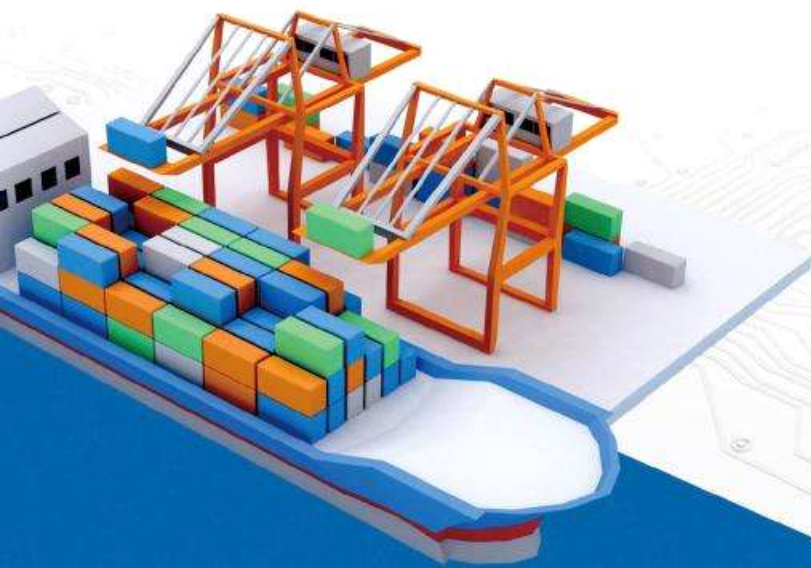
공지사항

1. 제13회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명사 스피치

“화주-물류기업 간,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 물류기업(협력사)간 물류산업 내 불공정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류당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당국인 국토부와 해수부가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필요 시 분쟁조정 기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정위가 불공정 혐의를 확정, 제재 하는 등 관계 부처들 간 협업하는 방안을 국회, 공정위 등과 논의하겠습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2017. 9. 14. / 물류신문)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카자흐스탄 물류시장 활성화 동향

카자흐스탄 물동량 변화 추이(2003-2016)

(단위: mln.ton)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1,687.5	1,840.5	1,926.9	2,023.4	2,124.1	2,188.7	2,103.3	2,439.4	2,974.9	3,231.8	3,508.0	3,749.8	3,733.8	3,729.2
including:														
railway	202.7	215.6	222.7	246.9	260.6	269.0	248.4	267.9	279.7	294.8	293.7	390.7	341.4	338.9
automobile and electric city train*	1,318.2	1,444.8	1,511.1	1,582.6	1,667.4	1,721.0	1,687.5	1,971.8	2,475.5	2,718.4	2,983.4	3,129.1	3,174.0	3,180.7
inland waterway transport	0.5	0.7	0.8	1.3	1.3	1.2	0.9	1.1	1.1	1.3	1.1	1.3	1.2	1.2
pipeline	166.1	179.4	192.0	192.2	193.8	195.8	162.9	194.0	214.1	213.2	225.9	225.0	214.6	205.8
maritime	-	-	0.2	0.4	1.1	1.7	3.6	4.7	4.6	4.0	4.0	3.6	2.5	2.6
Airline, (thousand ton)	24.2	18.2	20.7	16.5	25.7	22.7	22.0	28.9	31.6	22.0	23.9	19.1	17.2	18.0

자료 : 카자흐스탄 경제부 통계위원회

- 2003년 카자흐스탄 물동량은 16억 8,750만 톤이었으나 2016년에는 37억 2,920만 톤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함
 -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임에 따라 도로운송이 13억 1,820만 톤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철도운송은 2억 270만 톤, 파이프라인 1억 6,610만 톤 순임
 - 카스피 해를 통한 해상운송은 2005년부터 차츰 증가해 2016년에는 260만 톤 규모의 화물이 운송 되었으나, 카자흐스탄 전체 규모 대비 여전히 적은 비율을 차지함
 - 화물운송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물류성과지수(LPI)는 160개국 중 77위를 차지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했음
- 2016년 9월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는 향후 주요 인프라 확충 계획 및 호르고스 경제특구의 교통 인프라와 물류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음
 -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 지대에 조성된 운송·물류 단지 겸 경제특구 호르고스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
 - 올해 5월 중국 최대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 해운사와 상하이 북부의 중국 화물 통로의 핵심 항구인 렌원강항의 운영회사가 호르고스 내륙 항구의 지분 49%를 공동으로 획득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17년 10월 26일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물류의 미래: 창고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됨
 -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은 물류성과지수 40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창고 인프라 개발, 운송 절차 간소화, IT기술을 접목시킨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에 나섬



- 카자흐스탄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이 모스크바-카잔 고속도로 건설,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등과 같은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가동 중임
 -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터키를 통과해 서유럽으로 향하는 트랜스카스피 국제교통회랑의 한 구간인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가 2017년 10월 개설되었음

■ 참고자료 : rzd-partner.ru, 2017.10.18. / bnews.kz, 2017.10.26.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물류정책 · 산업동향

아시아~유럽항로 선박 90%, 14,000TEU 초과 예상

- 최근 SealIntelligence Consulting사 대표인 Lars Jensen씨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유럽 항로를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컨테이너 선박이 14,000TEU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조선소의 수주잔량(orderbook)을 분석한 결과, 향후 수년 내 아시아~유럽항로의 선박이 대형선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Jensen씨가 말함
- 아시아~유럽항로에 배치된 14,000TEU급 이상 선박은 6년전 만 해도 5%에 불과했음
 - 지난 6년간 성장세가 둔화되어 선박의 서비스 항차 수가 꾸준히 감소했음
 - 그 당시 선사들의 전략적 선택은 22,000TEU급 선박 대신에 10,000~14,000TEU급 선박을 투입하고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음
- 올해 아시아~유럽항로에서 OOCL선사는 21,413TEU급 3척을 투입했고, 2M 얼라이언스는 20,568TEU급 *Madrid Maersk*호를 운항하는 등 14,000TEU급 이상 선박 비중이 절반수준임
 - 21,414 TEU급의 *OOCL Germany*호, *OOCL Japan*호, *OOCL United Kingdom*호 3척은 FAL5/LL1 서비스 항로에 투입됨
 - 극초대형선(ULCV, ultra-large container vessel)인 *OOCL Germany*호가 발헬름스하펜시에 있는 유로게이트 컨테이너 터미널에 2017년 10월에 기항함
 - 20,568TEU급의 *Madrid Maersk*호는 AE10/Silk 서비스 항로에 투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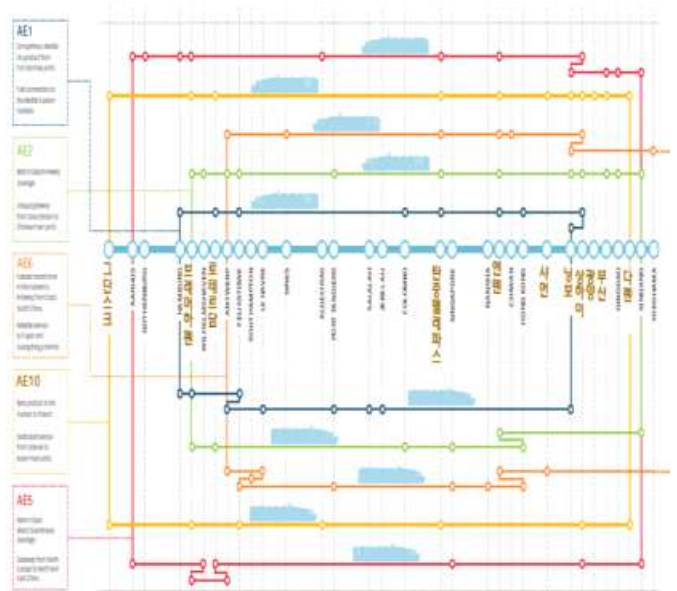
아시아~유럽간 극초대형선(ULCV) 투입 항로

〈FAL5/LL1 항로〉



자료 : cma-cgm.com, gcaptain.com

〈AE10/Silk 항로〉



자료 : app.eesea.com



- 앞으로 수년간 인도될 18,000~22,000TEU급 선박 수는 현재의 2배가 되고, 2020년까지 아시아~유럽 항로 선박의 약 90%가 14,000TEU급 이상이 될 것임
- 조선소의 인도 예정일을 고려할 때 아시아~유럽항로에 18,000TEU급 이상 선박은 2020년에 125척이 될 예정임
- 향후 3년간 아시아~유럽항로 물동량이 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65척이 필요하므로 추가 발주가 요구됨
 - 아시아~유럽항로 서비스 증가에도 불구하고 125척만 투입하면 3대 얼라이언스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1개는 중단해야 함
 - SealIntel사는 현 서비스 수준인 주 15항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65척 선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3대 얼라이언스가 18,000TEU급 선박을 현재보다 14척씩 더 주문해야 한다고 설명함

■ 참고자료 : americanshipper.com, 2017.10.24.; gcaptain.com, 2017.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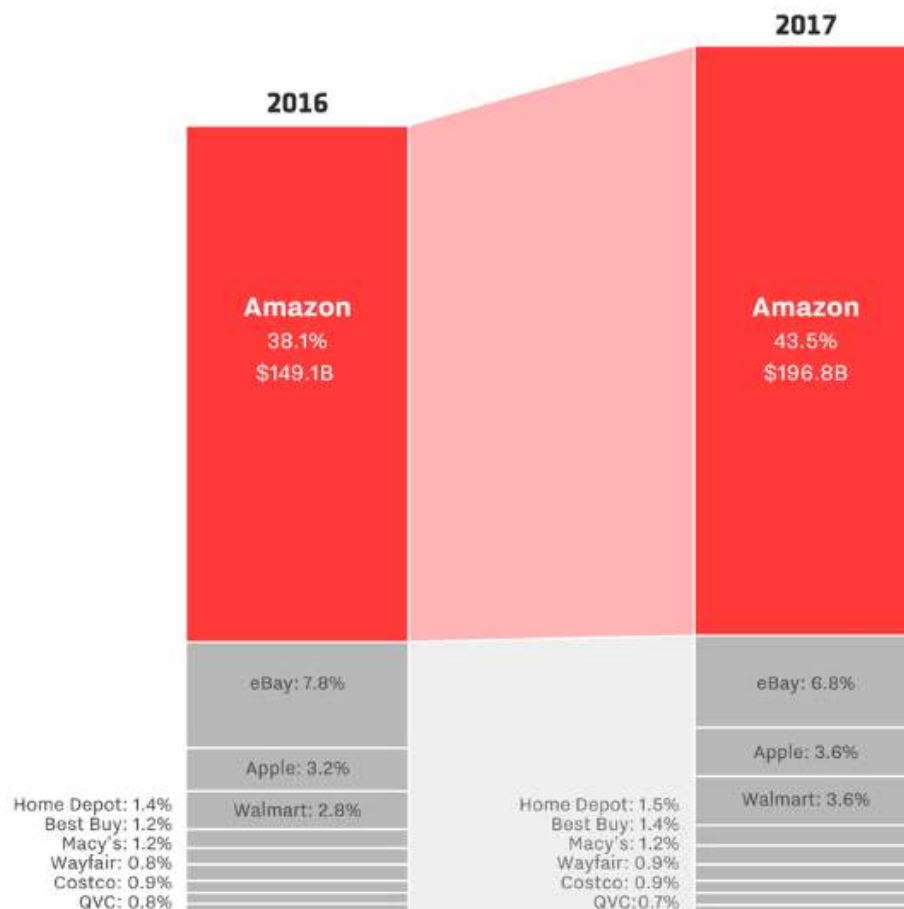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

아마존,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 절반 차지

- 최근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 소비하는 매 1달러 중 44센트를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작년 38센트보다 더 증가한 액수임
- 올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32% 증가한 1,9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의 43.5%를 차지하는 수준임
 - 작년 38%의 시장 점유율로 1,49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아마존은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며, 애플, 이베이 및 월마트 등의 경쟁사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음
 - 단 이 데이터들은 Stitch Fix 같은 민간 기업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래 그림에 언급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은 더 작음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 상위 10위 기업(공기업)



자료 : eMarketer

주: 2017년도 데이터는 추정치임



-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미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현재까지 해당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
 - eMarketer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의 온·오프라인 시장 매출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자료 : cnbc.com, 2017.10.30.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중국 자유무역항 개발, 홍콩항 위협 예상

- 현재 중국은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항(free trade port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회의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해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상무부(Commerce ministry)는 상하이 정부와 함께 가장 높은 국제적 수준의 무역항을 설계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금융, 외환, 투자 등의 분야에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상하이 개발개혁위원회(Shanghai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지난 9월 한 포럼에서 자유무역항 개발을 통해 제조업과 무역의 통합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함
- 이와 같은 중국의 자유무역항 개발은 점차 홍콩항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중국 시장의 진입점 역할을 상실하게 할 것으로 분석됨
 - 홍콩 정부에 따르면, 중국대륙 국제무역의 40%를 홍콩항이 담당해 왔으나, 중국 대륙 내 항만들과 경쟁이 가시화되어 옴
 - 지난 10년 간 홍콩항은 세계 1위 컨테이너 항만이라는 타이틀(2005년)을 상실했고, 컨테이너 서비스는 이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해 상하이항 컨테이너 처리량은 홍콩항 대비 87% 높았으며, Ningbo항과 선저항은 홍콩항보다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함
 -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적 선박에 중국 내항화물 운송을 허용하는 등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자유무역항 개발에 따른 홍콩항과의 경쟁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특유의 폐쇄적인 자본경제, 법치주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항 개발 및 추진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수준의 개방적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중국 연안의 자유무역항 개발은 중국 내 항만 간 경쟁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상하이, Ningbo 등 지역의 항만 개방은 반드시 홍콩항에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 참고자료 : hellenicshippingnews.com, 2017.10.31.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급성장하는 Amazon의 3PL 사업, 기존 3PL 업체에 위협?

- 2017년 3분기 아마존社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7% 증가한 437억 US달러를 달했고, 순이익은 1.6% 증가한 2억 6,500만 US달러를 기록함
 - 아마존社は 지속적으로 세계 주요 거점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항공운송 인프라, 해상운송 인프라 등 물류 다방면에 투자를 진행 중임
 - 또한 Atlas Air社 및 Transport Service Group社와 40여개의 전용화물 항공기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켄터키주에 항공화물 허브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은 아마존의 물류사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고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아마존社は 기존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 추가비용 없이 'Amazon Key'라는 신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기존 택배 서비스는 택배 도착 시 사람이 없으면 문 앞에 놓거나 경비실에 맡기는 방식임
 - 하지만 11월 8일 서비스 출시 예정인 'Amazon Key'는 홈 와이파이를 및 카메라를 통해 배송물 및 배송자를 인식하고 원격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방식인 무인 택배 서비스임
 - 이 방식은 택배 도착 시 배달원의 행동을 촬영한 영상을 배송관련 정보와 함께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보안기능을 갖추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마존社の 급성장은 기존 3PL 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Dachser UAS Air & Sea Logistics社의 사장 겸 CEO인 프랭크(Frank Guenzerodt)씨는 "지금 당장 아마존社は 기존 3PL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추세로 향후 10-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급성장 한다면 아마존社は 세계 물류시장의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americanshipper.com, 2017.10.30.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해외현지리포트

남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물류 동향 보고서

- 중국-베트남, 크로스보더(cross-border) 무역구(trade zone) 개장
 - 중국 남부 광시 좡족 자치구(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에 새로운 중국-베트남 크로스보더 무역구가 개장됨
 - 국경도시 징시(Jingxi)¹⁾에 위치한 롱방-트라린(Longbang-Tra Linh) 무역구는 5만 m²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개발되었음
 - 600억 위안(약 9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롱방-트라린 무역구는 2013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 9월에 시범운영이 이루어졌음

롱방-트라린(Longbang-Tra Linh) 무역구 위치 (붉은색 표시)



자료: 구글 지도.

- 중국-베트남 국경 2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무역구에서 상품을 교환할 수 있으며 하루 8,000위안(1,200 달러)까지의 구매에 한해 면세가 적용됨
- 베트남의 VCL 물류합자회사 대표인 Tran Dai Nghia씨는 다른 중국과 베트남 간 무역구에 비해 롱방-트라린 무역구가 보다 나은 통관 절차가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어서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고 베트남으로부터 수출되는 제품들은 이 무역구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전달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 무역구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1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이 지역의 빈곤으로부터 35만 명이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광시 좡족자치구 바이쎬(Baise City)에 있는 현.



● 호주, 중국과 크로스보더 MOU 체결

- 호주는 중국 시장으로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²⁾에 호주산 제품을 진출시키고자 양국 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
- 호주 정부의 환경인증캠페인조합 (Australian Made Campaign Limited, AMCL)은 수요가 늘고 있는 자국 제품에 대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중국의 광동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협회 (Guangdong Cross-Border E-commerce Industry Association, GCEIA)와 MOU를 체결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리테일러, 마케팅, 물류회사를 포함해 중국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2000여 업체들에게는 GCEIA가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번 양해각서는 광저우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 중소기업 박람회(China International SME Fair)에서 호주의 부총영사(Deputy Consul-General) 겸 광저우 수석 무역사무관인 Paul Sanda씨가 서명했으며, 이어서, 박람회 행사 중 특별 행사로 개최 된 'Australian Made' 행사에서, AMCL Ian Harrison 대표가 공식 양해각서에 서명했음

23 AMAG 인증마크



자료: australianmade.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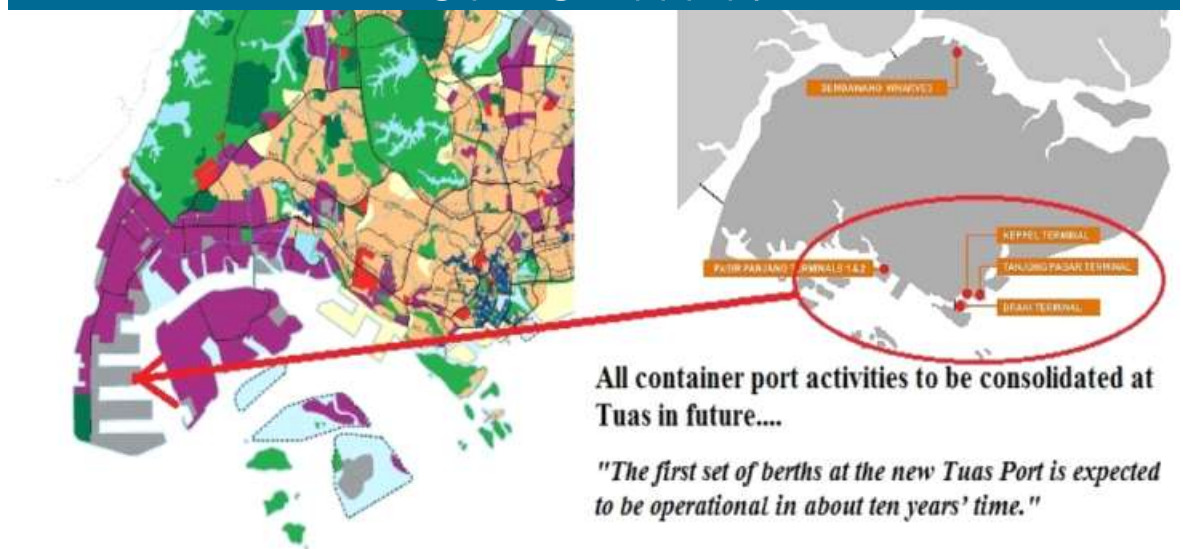
- 이번 행사에서는 'Australian Made, Australian Grown (AMAG)' 인증마크가 호주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했음
- MoU의 일환으로 GCEIA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AMAG 인증마크에 대해 교육하고 www.australianmade.com.au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제품을 홍보할 예정임
- 호주에서 만들었거나(Australian Made), 호주에서 생산하여(Australian Grown) 인증 받은 제품들만이 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으며, 이 웹사이트는 호주에서 제공하는 가장 많은 AMAG 제품을 온라인 상에 전시하고 있음
- Harrison 대표는 이번 MoU가 지역 업체들에게는 중국 시장으로의 귀한 채널(channel)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언급함
- 이어 Harrison 대표는 "규모와 시간,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 무역 채널을 통해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어려워했던 호주 기업들에게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유리한 기회이다. (중국) 현지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며, GCEIA는 호주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연락망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언급했음

2) eMarket의 보고서(2016)에 의하면,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매출 총액은 1,5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선사들의 얼라이언스가 항만에 미치는 영향

- 항만들은 선사들의 얼라이언스로 항만 물동량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 대형 선박들을 처리해야 하는 항만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기항하는 선박의 크기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항만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임
- 이에 더하여 TPM(Trans-Pacific Maritime) Asia Conference에서 Arcadis Asia사(社)의 운송 및 물류 부서의 Jonathan Beard 대표는 여러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들에게는 이런 (선사들의) 얼라이언스가 도전(challenge)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 그는 이어,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운송망을 보다 크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에 터미널 간 화물 운송은 더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고 언급하였음
- 이는 부산항만과 상하이항만과 같이 항만이 분할(spilt port)되어 있거나 홍콩처럼 여러 개의 항만을 관리하는 다중 운영사(multi-operator)에 의해 운영되는 항만들은 자벨알리(Jabel Ali)항만이나 싱가포르항만(Tuas 컨테이너 터미널)³⁾과 같이 단일 항만 운영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항만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Beard 대표는 덧붙였음

싱가포르 항만 재배치 계획



자료: westwoodresidencecc.com.

- HPH Trust의 Gerry Yim 회장은 “운송라인의 통합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얼라이언스를 맺은 선사들이 더욱 거대해지고 처리하는 물동량도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문제는 얼라이언스 자체가 아니라 대형선박이 문제”라고 말하며, 항만에 기항하는 선사들의 선박 수는 늘지 않았다는 Beard 대표의 의견에 동의했음
- Yim 회장은 안티엔(Yantian)에 위치한 하치슨 사의 컨테이너 터미널(HPH Trust's terminals)을 예로 들면서, 이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대형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얼라이언스로 인한 기항 선박 수의 차이는 평균 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음

3) 싱가포르의 현재 부산과 같이 선석이 나뉘어져 있지만, Tuas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하여 모든 처리 시설들을 Tuas로 옮길 예정이다.



-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Xinjiang),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빠르게 증가
 -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지난 7-9월까지 122만 달러 가치의 화물량을 기록
 - 우루무치 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 지역에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이후 신장 지역에서 총 17만 6천여 개의 화물이 수출되었다고 발표함
 - 이 지역은 전자상거래 사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큰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우루무치 세관 직원인 Guo Ying씨가 말함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화장품, 전자제품, 배터리 등이 있음

■ 참고자료 : chinadaily.com.cn, 2017.10.24. / china.org.cn, 2017.10.8.

신성호 해외현지 에이전트
oxygen0070@gmail.com

제13회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1. 설명회 개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3회 해외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14:00 ~ 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참가문의 : 신수용 전문연구원(051-797-4780, shinsy@kmi.re.kr)
김병주 연구원(051-797-4784, bjkim17@kmi.re.kr)

※ 본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설명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20	행사 등록 및 자료 배포	
개회식 - 사회자(국제물류연구실 신수용 전문연구원)		
발표		
14:20~15:20	태국 항만 개발(램차방) 및 동부경 제회랑 사업 추진 계획	태국 항만공사 Mr.Komol Sribangpleenoi Ms.Panhathai Nitilatthi
15:20 ~ 16:20	인도네시아 콜드체인 시장 현황 및 투자 방안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Mr. Prayudi Budi Utomo Ms. Wiwik Fitrianingsih
16:20 ~ 16:40	Coffee Break	
16:40~17:40	베트남 DEPOT 투자 사례	판토스홀딩스 박경철 수석
17:40 ~ 18:00	행사 종료 및 마무리	



『제13회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참가신청서

-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14:00 ~ 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회 사 명

참가자 1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참가자 2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 참고 사항

- 신청인원 : 참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7.11.7.(화) 18:00까지 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E-mail (shinsy@kmi.re.kr / bjkim17@kmi.re.kr)
- 문 의 :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신수용 전문연구원 Tel.051-797-4780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병주 연구원 Tel.051-797-4784
- 기 타 : 참가비 무료